

국제 비교를 통해 본 건설산업 노동생산성과 인건비

- 미국 COMPASS사의 건설비용 자료집 분석, 소득 수준별 지수 산정 -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전적으로 인적 자본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함께 인건비가 높아진 반면 생산성의 향상은 부족하여 경제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건설산업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해외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발표되는 건설산업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제자리걸음을하고있다.

건설산업의 이러한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및 인건비는 아직까지 국가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사되지 못하였다. 건설 사업은 모든 사업마다 조건이 다르기에 한 기업의 생산성을 파악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및 인건비를 살펴보기 위해 COMPASS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로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성급히 내릴 수는 없다. 다만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많은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의 전적 컨설팅 기관인 COMPASS사는 세계각국의 건설비용자료집을 매년발간하고있다.

2007년 발행된 세계 건설비용 자료집에는 8개 국가의 건설시장규모, 주요시설물 건설비, 건설장비비, 인건비, 생산성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사업 기획 및 개산 전적시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업의 실제 원가 산정시 사용할 경우에는 재보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해외 건설비용의 조사 자료로서 꾸준히 발간되고 있으며, 81개 국

소득 수준별 인건비 및 생산성지수

소득수준 1인당 GDP(달러)	국가 수	GDP		인건비지수			노동생산성지수		숙련기능 인력대비 기술자 인건비차지수
		평균 (달러)	평균 지수	기술 인력	숙련 기능 인력	일반 기능 인력	기술 인력	기능 인력	
Korea	-	18,95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00 미만	26	2,795	0.15	0.63	0.61	0.49	0.84	0.56	1.17
5,000 이상 10,000 미만	17	7,138	0.38	0.99	1.07	0.78	0.88	0.76	0.99
10,000 이상 20,000 미만	12	14,537	0.77	1.02	1.25	1.04	0.89	0.77	0.85
20,000 이상 30,000 미만	7	25,184	1.33	1.45	1.76	1.24	0.95	0.87	0.83
30,000 이상 40,000 미만	11	33,602	1.77	2.75	3.72	3.34	1.03	1.01	0.77
40,000 이상	8	47,862	2.53	3.08	5.03	4.84	1.02	1.03	0.67

출처: COMPASS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함.

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생산성 12 15위, 인건비 36 47위

세계각국의 건설산업 노동생산성과 인건비를 살펴본 결과,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보다 높게, 인건비는 낮게 나타났다. 국내 1인당 GDP는 조사대상 81개 국가운데 28위이고, 건설 기술 인력의 노동생산성은 15위, 기능 인력의 노동생산성은 12위로 나타났다. 기술 인력의 인건비는 47위, 숙련기능인력 인건비는 47위, 일반기능인력 인건비는 36위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건설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동안 국내 건설산업의 인건비는 중국, 인도 등 국내보다 낮은 소득 수준의 국가와 주로 비교되었다. 생산성은 건설산업보다 증가율이 큰 제조업 등의 타 산업과 비교되거나, 혹은 선진국과 비교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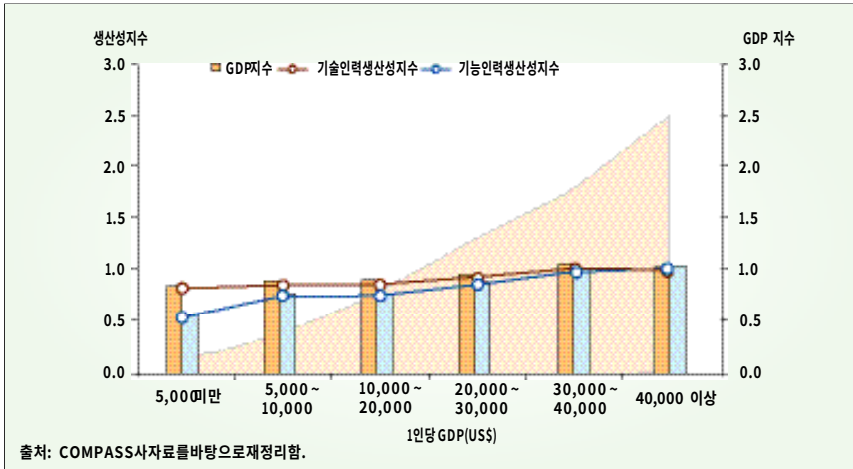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분석한 표에서도

국내 인건비 및 노동생산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를 분류하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 1만 달러 이상 2만 달러 미만의 그룹에 속해있다. 1인당 GDP, 인건비, 생산성 등 비교 자료는 국내 값을 기준(1.00)로 지수화되었다.

우리나라가 속한 그룹의 평균 생산성 지수는 기술인력 0.89, 기능인력 0.77로 나타났다. 2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그룹의 평균 생산성 지수도 기술인력 0.95, 기능인력 0.87이다.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2만 달러 이상 소득 수준의 국가와도 격차가 크지 않다. 국내 건설산업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건설 인력의 인건비 역시 양호한 수준으로 아직까지 인건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속한 그룹의 평균 1인당 GDP 지수는 국내보다 낮은 0.77이나, 인건비 지수는 기술인력 1.05, 숙련기능인력 1.24, 일반 기능인력 1.04로 국내보

소득 수준과 생산성지수



다높게나타나고있다.

노동생산성 향상 더딘 그룹에

노동생산성은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에서, 기술인력보다 기능 인력에서 더 크게 향상되고 있다. 기능 인력은 작업 도구, 건설 장비와 같은 생산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생산 환경은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개선될 여지가 저소득 국가에서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술인력의 노동생산성 변화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기술인력의 생산 환경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하인 그룹에서 기능 인력의 노동생산성은 소득 수준과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3만 달러 이상의 국가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아져도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이거나, 건설 산업에서는 노동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위 그림에 따르면 건설 산업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적어진다. 국내 건설 산업의 노동생산성 역시 변화가 미미한 구간에 있다. 국내 건설

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산업 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숙련 기능 인력 임금 오를 듯

인건비 변화량은 생산성보다 크게 나타난다. 3만 달러 이하 그룹에서는 소득 수준과 비슷한 비율로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다. 3만 달러 이상 그룹에서는 인건비 증가가 소득 수준 증가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기능인력의 인건비 변화가 크다. 기능인력 인건비 지수는 고소득 국가 그룹으로 갈수록 증가 폭이 크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술자와 기능 인력의 인건비 차이는 적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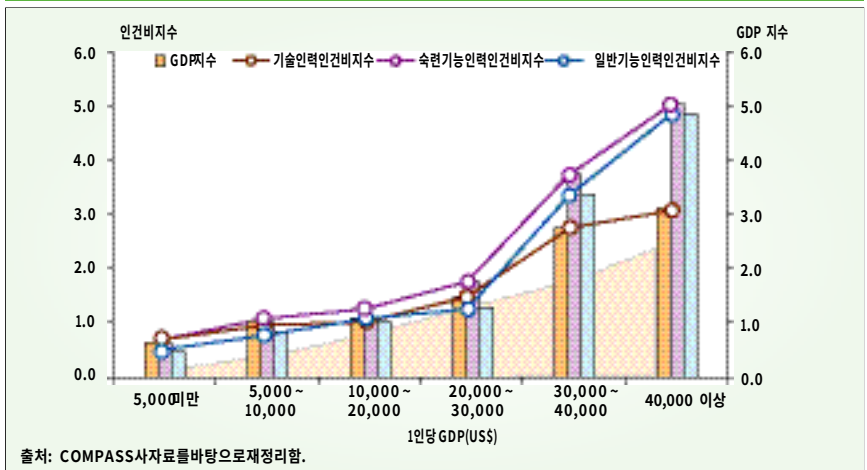
기술자와 숙련 기능인력 간의 인건비 차이가 가장 적은 국가는 미국으로, 두 직종 간 인건비의 차이는 약 5%에 그친다. 국내의 경우는 기술자 인건비가 숙련 기능인력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나 소득 수준에 비해 인건비 차이가 큰 편이다. 이것은 소득 수준 5,000 1만 달러 그룹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건비는 속해 있는 그룹의 평균 인건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숙련 기능인력의 인건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건설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기술 인력의 수급이 어려운 현상을 고려하면 향후 숙련 기능인력의 임금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분야 역량 강화 전략을

본고에서 살펴본 자료는 미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사용하는 자료로서, 현지 기업이 수행하는 건설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노동생산성의 경우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되어 사업 분야가 다를 경우 결과도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국내 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그동안 낮은 생산성과 높은

소득 수준과 인건비지수





인건비의 산업으로 인식되던 건설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자료로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매년 세계 건설 기업의 순위를 조사하고 있는 ENR(Engineering News Records)지에 따르면, 국내 건설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998년 4.0%로 조사되었으나, 2007년에는 2.6%로 줄었다. 동시에 세계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1998년 8위였던 우리나라는 스페인, 호주, 터키에 밀려나며 2007년 11위로 하락하였다. 과거 국내 건설 기업은 양질의 인력을 낮은 비용으로 확보하여,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인건비 경쟁이 심화되었고, 국내 건설 산업의 높은 인건비는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판단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인건비는 국가 소득 수준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개발도상국들과 인건비 경쟁을 하고 있기 때

문에 체감하는 것으로서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 건설 인력의 인건비 및 노동 생산성은 국가 소득 수준으로 비교할 때,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당면한 국내 건설 산업의 문제는 생산성 및 인건비 분야에서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점유율은 중국 및 터키 기업들의 부각과 함께 급속히 감소하였다.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 등 건설 강국의 시장 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이 생산 기술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선진국의 기업들은 관리 기술 중심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었다.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중국이나 터키 등 개발도상국과 인건비 경쟁을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국내 기업들은 이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시장으로 전

COMPAS⁸⁾의 건설비용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건설 기술 인력의 노동 생산성은 81개 국 중 15위, 기능 인력의 노동 생산성은 1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고부가가치 기술, 관리 기술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취약 분야에서 역량 강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상승할 기능 인력의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기능 인력의 인건비 상승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기능 인력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타 산업으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산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sungyk@cerik.re.kr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ichoi@cerik.re.kr